

제 59 호
1997년 12월 25일
월 간



춘천시보

시표상	발행인 : 배계섭	안 내
동물 : 범	인쇄인 : 임우룡	민원실 : 120
새 : 산 까 치	발행처 : 춘천시	당직실 : 53-3700
꽃 : 개 나 리	우) 200-708 춘천시 옥천동 111	편집실 : 250-3229
나무 : 은행 나무	인쇄처 : 강원일보출판국	FAX : 250-3339
		비 매 품

1993년 1월 25일 창간 THE CHUN-CHON SHIBO 1997년 12월 25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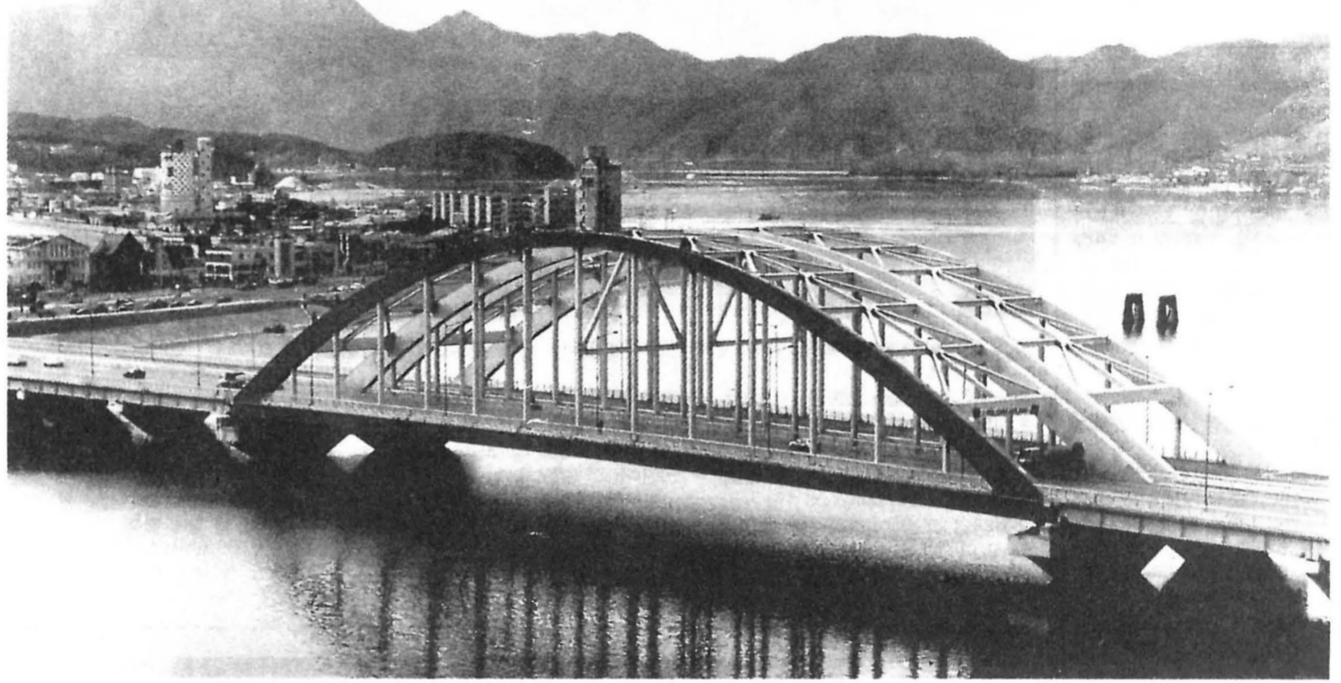
소양2교 12월 30일 개통 교통소통 큰 도움

호반순환도로와 연결, 도심교통체증 해소 기대 · 도농균형발전 가속화

춘천의 강남북을 연결하는 소양2교의 시내방면 아치교가 마무리돼 오는 12월 30일 준공식을 갖고 개통된다. 소양호반과 어우러진 환상적인 경관을 자아내는 쌍둥이 다리는 지금으로부터 꼭 2년전인 95년말 1차로 개통된데 이어 나머지 한쪽 다리가 이번에 완공된 것이다. 총공사비만 2백14억7천8백만원이 투입된 소양2교는 전장 5백10m 폭 35m로 아치의 곡선미를 한껏 뽐내고 있다.

이미 95년 개통되었던 반쪽은 지난해 한국감(網)구조학회(회장-장동일 한양대 토목공학과 교수)로부터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

호반순환도로와 연결돼 도심통과 차량의 정체현상을 크게 해소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소양2교 쌍둥이다리 준공

춘천의 강남북을 연결하는 소양2교가 오는 12월 30일 개통될 예정이다. 준공이 되면 병목현상으로 심한 체증을 빚었던 교량입구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도농균형개발이 힘이 붙어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 시내주민들의 출·퇴근도 이전보다 훨씬 용이해 질 것이며 호반순환도로와의 접속도 이뤄져 도심차량의 소통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도 취로사업비 5억 책정 서민생활 안정차원 10배 증액

춘천시와 춘천시의회는 도내 시군중 제일 먼저 내년도 취로사업비를 예년의 10배로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지난 12월 20일 시와 시의회는 내년도 취로사업비를 총천 5천만원에서 5억원 수준으로 대폭 늘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인원 3만명 정도에게 혜택이 돌아갈 이번 합의는 최근의 경제난으로 내년중 대량실업이 발생할 소지를 감안, 서민 생활안정대책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시는 내년도 경상경

혈동리매립장 1단계공사 年内 준공

시민과의 약속 엄수 · 내년 1월 4일개 매립 시작



◇ 혈동리매립장 1단계 공사 준공이 올해안에 이뤄져 내년초부터 매립이 시작된다. ◇

신동면 혈동리에 건설중인 생활폐기물처리장(쓰레기매립장) 1단계 공사의 준공이 연내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돼 당초에 시민과 약속했던 1월초 매립이 가능케 됐다. 4년전부터 쓰레기를 매립할 곳을 찾지 못해 6군데의 가짜치장에만 침출수 방지는 물론 빗물이 흘러들지 않는 빗물 배제시설 등도 완벽하게 시공했다고 말했다. 혈동리의 처리장시설규모는 5만1천8백82평으로 2백33억8천3백만원이 투입하게 된다. 내년 1월 4일개

학원폭력신고 직통전화 설치 · 운영
춘천지검 검사장 집무실 ☎ 240-4282

○ 춘천지방검찰청에서는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의 하나로 검사장 집무실에 학원폭력신고 핫-라인을 설치하고 시민및 학생여러분의 신고와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신고대상 범죄유형
- 학교 및 학원주변 금품갈취 등 폭력행위
- 학교내 불량씨름 · 본드 등 환각물질 흡입행위
- 미성년자 출입금지 장소(업소) 출입행위 등
- 신고전화
- 주안 : 춘천지검 검사장 집무실 ☎ 240-4282
- 야간에는 춘천지검 당직실로 연결(24시간 접수)
- 신고(제보)자의 일체의 비밀을 보장하고, 사안별로 담당검사를 지정하여 신속하게 해결하여 드립니다.

送 年 辭

존경하는 24만 춘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공직자 여러분!
숨가쁘게 달려온 정속한 한 해 저물어 갑니다.
저는 먼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온갖 정성을 한데 모아주시는 시민여러분께 참으로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춘천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일념으로 밤낮을 같이 해 온 산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계는 지금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는 격동의 대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의 발달로 세계경제의 시장과 고객 중심으로 급속하게 이동하고 있으며, 국제무역장벽이 철폐되어 국가나 지방, 민간부문 등 모든 분야가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세계각국은 다가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선점하고 날로 좁아져 가는 지구촌 시대를 이끌기 위해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한발 앞서 준비해 나가는 국가나 지역만이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도약할 수 있다는 것은 지난 역사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급변 한 해 춘천시정은 이러한 역사적 전환기를 맞아 남보다 앞서 나가고자 열심히 일해 왔으며, 지역 모든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비전과 철학이 있는 도시로 자리매김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춘천발전을 주도할 대표적인 산업기반이 전무하여 지역발전이 한계가 있음을 직시하고 다가오는 21세기 미래산업을 선도할 멀티미디어 영상산업과 생물산업을 양대 축으로 하는 지역산업구조개편을 역동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벤처산업육성의 산실이 될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와 생물산업연구생산 벤처빌딩이 발주 중에 있으며, 디지털특수영상스튜디오 건립도 70억원 전액 정부지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벤처기업 및 연구소가 이용할 생물산업 연구 및 생산시설비 130억원을 내년부터 2000년까지 3개년차 통산산업부로부터 지원 받기로 결정되는 등 우리시의 산업구조 개편은 급속히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을 확고히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남산면 창춘리에 멀티미디어 예술전문대학의 유치에 마무리 한 것은 매우 감사스러운 일이며 앞으로 전문산업인력의 안정적 공급은 물론 지역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금년도부터 2001년까지 모두 2,204억원을 투자하게 되는 도농통합에 따른 농업구조개선 5개년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만해도 402억원을 투자하였으며, 내년도에도 405억원을 배정하는 등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기능의 고도화를 위한 도시구조의 획기적인 조정을 위해 4동8당하는 교통망의 체계를 확립하였고 도농통합에 따른 읍면도시 기본계획 구역을 확대하고 도시주요 기능의 재배치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한편, 금년은 우리시의 최대 현안과제들이 원만히 해결된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먼저 전국 최초로 시민과 사회단체 그리고 행정이 함께 해결한 쓰레기매립장이 착공되어 내년도부터 사용하게 됨으로써 그동안 시민 생활에 불편을 물론 지역감정을 말끔히 해소하였으며, 지난 86년부터 추진해온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사업도 원만히 타결되어 본격 착수를 앞두고 되었습니다.
이는 자치시대 지역발전의 근간이 되는 더불어 살아가는 성숙한 시민정신이 확고히 정착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만성병환자 가정간호사업 등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치행정의 근원이 되는 시민 보건복지의 기틀을 더욱 다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외부에서도 우리 시를 가장 차별화 되고 앞으로 비전있는 도시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물론 국내 권위 있는 연구소와 학계, 언론계에서 실시한 전국 자치단체 평가에서 우리시가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자치평가 최우수 도시」 「지방경영 전국 최우수 도시」로 선정됨으로써 직 · 간접적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부추기는데 크게 일조를 한 보람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춘천은 나아가 할 길을 찾았고, 첫 단추도 잘 꿰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3~4년 동안만 기반을 잘 다져 나간다면 우리시는 21세기 「새로운 춘천」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비록 국가경제가 불황과 불안정의 어둠과 긴 터널에 빠져들고 있습니다만, 우리 특유의 저력과 극복의지가 있는 한 능히 이 난국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희망과 기대 속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인식 아래 새해 시정도 새로운 각오로써 일해 나아갈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보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무인년 새해에도 시민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만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민 여러분!
힘을 냅시다. 그리고 다시 시작합시다.

1997년 12월 31일
춘천시장 배계섭

제98회 정기회 개최

내년도 춘천시 예산 밀도있게 심사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결의안 채택

춘천시의회는 97년 11월 25일부터 오는 12월 29일까지 35일간의 일정으로 제98회 정기회를 열어 춘천시정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 당초예산안,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춘천시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등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 '98 공공시설 설치 관리계획안, '98 공영재산 관리계획안, 춘천시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결정 청구안 등을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각각 심의·의결하였다.

특히, 최종심의 의회 23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보위기 및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현시국 타개를 위한 범시민 통합 분위기를 확산에 앞장서기로 하였다.

또한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6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97회 임시회에서 의결·요구한 바 있는 감사자료 3백85건을 가지고 '97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97년 12월 2일에는 배계섭 시장을 비롯한 관계 실 국장들



◇ 제98회 춘천시의회 정기회가 본회의장에서 열려 의원들의 심도있는 시정질문이 펼쳐졌다. ◇

의정단신

태권도 성전유치권 위한 대책회의
가장 "태권도 성전 유치권 추진위원회(위원장-정태섭)은 지난 12월 9일 시의회 의정실에서 태권도 성전 유치를 위한 집행위원 구성모임을 열어 21명의 집행위원을 확정했다.

또 12월 15일 성전 건립을 추진 중인 태권도 협회 산하 성전 건립 추진위원회를 방문하여 성전 추진시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고 돌아왔다.

○위원장 : 정태섭(춘천시의회 의장)

○부위원장 : 정길준(도 태권도 협회 부회장), 한승호, 지용원, 이건설 의원, 박병철(전 도태권도협회 전무이사)

○사무국장 : 최신철 의원

전국담관련 시·군·구의회의장 및 관계관회의

지난 11월 21일 충북 단양군 의회에서 담으로 인한 제반피해와 불이익 등 비현실적인 제도와 관행을 고쳐 지역주민을 보호하고자 공동대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2차 담관련 시·군·구의회의장 및 관계관 회의에 이건설 문화건설위원장과 박진호 전문위원이 참석 우리 시의 의견을 개진했다.

면단위 단위농협장, 의원 연석간담회 개최

시의회 이규성 부의장은 지난 12월 9일 동내면 소재 명산가든에서 면 지역 의원(10명) 및 단위 농협장(7명)을 초청한 가운데 연석간담회를 열어 97년도 추곡수매 등 현안사항과 면 지역 균형개발 및 기반시설을 위한 지역농협과의 상호 협력지원 방안모색을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공조체제를 다지기로 했다.

출석시킨 가운데 오현근, 이호상, 신진태, 성낙심, 정재하, 조오연, 조운우 의원으로 부터 시정전반에 관한 폭넓고 다양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다.

정태섭 의장은 개회사를 통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동안 온갖 정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다

하여 준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정에 적극 협조하여 준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한해동안 추진되었던 시정 전반사항을 되짚어 보면서, 잘못 되었던 사항들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찾아 이를 바르게 개선하게

하고 또한, 내년도 우리 시 살림에 예산에 대한 밀도있는 심사와 모든 일에 있어 마무리를 짓겠다는 것이 중요한 만큼 직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우리는 심각한 경제난으로 나라 전체가 소용돌이에 휩쓸리고 있다. 경제대국의 자리를 굳혀가는 위치에서 IMF의 긴급구조 금융을 받아 외채를 갚아야 할 정도로 어려운 실정에 놓이게 되었다.

무엇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웬지 두려움속에 쫓겨간 듯 말을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게만 느껴진다.

우리는 여기에서 누구의 잘못과 책임소재를 가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동안의 흠뻑이와 생활태도를 뒤돌아보고 깊이 자성해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허세와 거품을 걷어내고 허리를 굽혀야 하는 소박함과 인내심을 가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6·25의 잿더미속에서 맨주먹으로 굳건히 일어선고 힘겨웠던 보릿고개를 극복하며 살아남았던 우리 선인들의 슬기와 의지를 떠올리며 다시금 시작해야 할 것이

안보위기 및 경제난국극복을 위한 결의문

우리는 최근 남파된 간첩단 수사과정에서 대학교수 등 사회지도층 인사가 고장간첩으로 암약해 왔다는 충격적인 사실과 최근 심각한 환율의 급등과 주가의 급락 등 우리 경제의 위기감이 확산 되어가고 금융시장 불안 등 경제난국에서 하루속히 국가경제가 활력을 되찾는데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좌익세력을 척결한다.
1. 안보의식 재부각하여 용공분자 색출한다.
1. 해외여행 자제하여 외화유출 막는다.
1. 흡연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한다.
1. 근검절약 운동을 생활화하는데 앞장선다.

1997년 12월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원논단 절약으로 위기를 극복하자

최근 우리는 심각한 경제난으로 나라 전체가 소용돌이에 휩쓸리고 있다. 경제대국의 자리를 굳혀가는 위치에서 IMF의 긴급구조 금융을 받아 외채를 갚아야 할 정도로 어려운 실정에 놓이게 되었다.



이건실 의원

무엇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웬지 두려움속에 쫓겨간 듯 말을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게만 느껴진다.

우리는 여기에서 누구의 잘못과 책임소재를 가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동안의 흠뻑이와 생활태도를 뒤돌아보고 깊이 자성해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허세와 거품을 걷어내고 허리를 굽혀야 하는 소박함과 인내심을 가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6·25의 잿더미속에서 맨주먹으로 굳건히 일어선고 힘겨웠던 보릿고개를 극복하며 살아남았던 우리 선인들의 슬기와 의지를 떠올리며 다시금 시작해야 할 것이

가정에서부터 전등 절약, 수도를 아껴쓰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을 생활화 하면서 자가용 차량이름을 가급적 억제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다니는 생활습관을 기르자. 그리고 양담배, 양주 및 외제차량·용품 등은 사지도 말고 사용하지 말자.

모든 분야에서 자그마한 것에서부터 절약을 생활화 해 나가야 할 때다.

다른 사람부터 절약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우선 나 자신부터 그리고 우리지역부터 실천하는 자세를 가지고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우리의 팔과 정성을 모아야 할 것이다.

근검절약의 풍토속에 철저한 자기검열의 위치를 지켜나가는 노력으로 지금의 시련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각자 나 자신부터 적은것에 만족함을 가지며 손쉬운 것부터 절약하는 실천운동에 동참해 나가자.

주요안건 처리상황

1. 공공시설 설치 관리계획(안)
2. 춘천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개정조례안
3. 춘천시수도부담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4. 춘천시공공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5. 춘천시제증명등수요징수조례개정조례안
6. 춘천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7. 춘천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
8. 춘천도시계획시설변경에따른의견청취안
9. '96 결산 및 '98 당초예산안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11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 : 김진욱)를 구성하여 12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4일간 내년도 우리 시의 살림살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한창이던 허술함이 없도록 열띤 토론과 심숙적인 심사환동을 펼쳤다.

- '96 결산총액 : 318,951백만원
- 지출액 : 241,386백만원
- '97이월액 : 54,437백만원
- 불용액 : 23,205백만원
- '98 예산총액 : 279,149백만원
- 일반회계 : 188,770백만원
- 특별회계 : 80,379백만원
- 전년대비 : 6.9% 증액



의정칼럼

문화 정보화시대의 초석

김준근 의원(약사동)

오늘날을 가리켜 정보화 시대라고 한다. 컴퓨터 발달이 가져온 새로운 시대이다.

이처럼 새롭게 우리 앞에 도래한 시대에는 물질적인 자본이나 토지와 같은 영토가 부(富)와 권력(權力)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다. 문화와 정보라는 지적 자본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도록 되어 있다.

컴퓨터와 텔레커뮤니케이션의 결합이 가져온 제3의 기술혁명만큼 앞으로 영토대신 정보의 영역을 놓고 치열한 싸움을 벌일 것을 예고하고 있다. 또 이러한 지적 자본을 정치, 사회, 행정, 외교, 군사 등에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지역사회의 국가발전의 앞날을 가를 할 요체가 되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어제까지는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좋은 농지가 노닥지가 숨어 있는 단골을 찾아내야 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다.

춘추 전국시대를 방불케하는 세계 정보화 시대의 영웅들은 제각기 최량의 정보화 영역을 확보하려고 피나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시대이다. 심지어 경제 원리에서도 이제는 물질 자산보다는 보이지 않는 지적 자산을 더욱 소중히 다루는 시대가 이를 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적 자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지적 자산에는 직접 산업과 연결시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적인 아이디어도 있지만 관광문화 상품과 향토문화재산, 지역 특산물에 상표도 훌륭한 향토의 지적 자산이다.

춘천이라는 아름다운 호반의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도 향토 주민들이 공유해야할 지적 자산을 두말할 나위조차 없다.

우선 음식부터 살펴보자. 의암마을 담수되기 이전에 여름철이면 소양강 유원지는 불어날을 이었다. 강물에 툭툭 떠 있던 뽕잎에서 민물고기와 닭 삶은 물을 적당히 섞어 죽 끓인 소양강 어죽의 진미는 일품이었다. 70년대 이전 춘천은 대낮이면 누구나 아직도 이 어죽의 맛을 잊지 않고 있다.

지금은 춘천담과 인공호수 주변의 춘천매운탕 맛이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메밀가루를 반죽해 나무로 만든 국수틀에 넣어 얇은 국수가락을 뽑아내 동치미국물에 말아먹는 막국수는 오랜동안 향토 주민들이 즐겨먹는 맛깔스런 음식이다. 메밀산지 곳곳에는 막국수를 만들었지만 춘천에서 먹는 것처럼 맛이 나지 않는다. 거친 메밀가루와 호박씨 크기로 텡텡텡 씹어놓은 김치와 고춧가루로 만든 양념위에 얹어놓은 춘천 막국수의 돼지고기 한접음을 동물성과 식물성의 균형을 잡아주는 조화로 입맛을 한껏 더해준다.

춘천하면 연상시키는 닭갈비도 마찬가지다.

닭갈비에서 발전된 춘천닭갈비는 춘천의 트레이드마크로 이제 전국 어디를 가도 없는 곳이 드물다.

이런 춘천막국수와 춘천닭갈비는 해외로 이민간 출향 인사들의 향수를 달래는 메뉴로도 쓰였다. 그 후 애식들이 늘어나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 해외에서까지 이름을 떨치는 향토 음식이 되었다. 또 춘천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대표적인 음식이 된 것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김치는 고려때부터 선을 보인 발효 음식이다.

최고의 양념으로 버무려 관에 올려놓고 굵은 불고기도 한국을 찾는 해외 관광객이 즐겨먹는 우리나라 대표적 고구려 음식이 문화의 유산이다.

찬란한 신라 문화를 대표하는 불국사와 석굴암만 문화 유산이 아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무궁무진하다.

향토 주민들이 공유하여야 할 춘천막국수와 춘천닭갈비의 상표가 개인의 특허형 상표등록으로 출원되고 누구나 부를 수 있는 지역 이름인 소양강이란 이름이 특정 개인의 상표로 등록돼 정작 지역 주민이 이름을 쓸 수 없게 되어서는 안된다.

실제 상표법상으로도 군(郡)단위 이상을 나타내며 현재에 알려져 있지 않은 지명은 개인이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 특히 춘천지역 단위에서 주민들과 행정기관이 제대로 챙기지 못해 특정 개인이 이익만을 추구하는 전유물로 전락해 버리는 사례가 많다.

자치 시대에는 지역 농특산물 지방문화재 지역 특색을 나타내는 향토의 지적 재산을 적극 보호 육성해 문화의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이 때부터라도 자치 단체가 나서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향토의 지적 재산을 지역 주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향토문화에 따른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등 특허를 획득 지역특화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표출되어야 한다.

21세기 새시대의 요구에 걸맞는 태권도의 위상을 정립하고 태권도의 과학화와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생활스포츠로 재창조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여 가고 있다.

또한 올림픽을 비롯한 세계무대에서 스포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어 세계의 태권도 가족들

태권도 성전 건립을 기원하며

〈태권도성전유치위원회 사무국장 최신철〉

인류최대의 제전인 3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국악인 태권도가 금메달 8개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돼 지구촌 가족은 물론 우리 국민들에게 그 맛과 힘을 드러내며 새로운 긍지와 희망으로 자리잡고 있다.

우리는 반세기 남짓한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태권도와 국제화와 세계화'를 통해 국기원을 건립하면서 국내에서는 3백70만 유단자를 배출, 현재 5천여 태권도장이 국민들의 체위향상과 심신수련을 위한 요원으로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1백40여개국 5천만명의 동호인을 갖는 세계적인 현대

이 중추국에 거는 기대는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춘천시는 태권도인을 중심으로 태권도 성전 건립 의지가 담긴 서명운동을 펼쳐 왔으며 각계 지도층 인사, 시민단체, 체육계 등에서 태권도성전유치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더욱이 지역언론사에서 춘천의 태권도성전 건립의지를 적극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 태권도 성전이 전국에서 가장 산자수려한 춘천에 유치되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우리 춘천은 백국의 수도로서 예로부터 태권도의 정신으로

우리 춘천은 옛부터 백국의 수도로서

호국정신이 무장된 고장으로 알려져 있어

태권도 성전 건립지로는 최적지

스포츠 발전을 거듭해 왔다. 태권도를 통해 지구촌 구석구석에 우리의 문화, 정신, 예절 그리고 언어를 전파해 왔으며 한국을 대표하는 상징이 돼 한민족 전체의 자리가 되었다.

21세기 새시대의 요구에 걸맞는 태권도의 위상을 정립하고 태권도의 과학화와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생활스포츠로 재창조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여 가고 있다.

또한 올림픽을 비롯한 세계무대에서 스포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어 세계의 태권도 가족들

정신이 무장된 정서깊은 호국의 고장으로 일컬어져 왔으며 특유의 자연환경속에 수준높은 문화예술, 교육의 도시로서 국내외에 널리 알려져 있다.

국도의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망도 추진되고 있어 서울을 비롯한 각 도시에서의 교통망이 편도 남쪽한 통일시대를 대비한 권역의 중심지로서 국내 태후보지보다 태권도성전 건립지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태권도성전 건립 추진유치를 간절히 바라는 터이다.

생활체육 배드민턴 강습회

춘천시 생활체육 배드민턴 연합회는 춘천시와 함께 전문강사와 국가대표급 선수를 초청하여 시범경기를 펼쳐 춘천시민과 동호인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일 시 : '97. 12. 28(일) 14:00-18:00

장 소 : 춘천컨벤션홀

대 상 : 춘천시민(초보자 및 가족단위 대화형)

일일 배드민턴 동호인

준비물 : 운동화, 라켓(없어도 가능)

강습내용 : 준비운동, 기본기술, 경기 기본예절

참가비 : 없음

춘천컨벤션홀이 지난 12월 7일부터 생활체육 배드민턴 체육관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컨벤션 홀 이용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0:00-13:00			14:00-21:00	10:00-21:00
		18:00-21:00				

●입장료 : 800원(3시간)

●문의전화 (0361) 54-4949

핸드폰 : 011-364-8319

춘천시 생활체육 배드민턴 연합회

중앙로타리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시민 협조사항

○단속일시 : 수시단속

○단속구간 : 중앙로타리- 육림광장

중앙로타리- 중앙로 파출소

중앙로타리- 캠퍼지 구간

중앙로타리- 도청앞

○단속내용

-중앙로타리주변 지하상가 및 도로 공사 완공후 도로폭이 좁아져 교통정체 요인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로 교통소통이 더욱 악화되고 있어 시와 경찰서에서는 강력 단속 실시.

○주민협조사항

-주변상가의 물건 또는 사람이 승·하차 하기 위하여 정차할 경우는 우측방향 지시등을 점등하고 용무가 끝나후 신속 출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인근 주차장(지하상가 주차장, 시청주차장)을 이용하여 불법 주·정차량으로 인한 차량 소통에 어려움이 없도록 협조바람.

의정중계석

시정 및 행정사무감사 질의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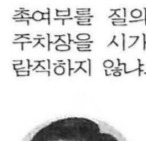
춘천시의회 의원들은 제9회 춘천시의회 정기회를 맞아 시정 전반에 걸쳐 깊이있는 질의를 통해 25만 춘천시민을 위한 의회로 거듭나기에 최선을 다한 모습이었다. 지난 12월 2일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시정질문과 각 소관위원 질문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본다.



○오영근의원 (서면) : 서면 덕두원리 등산로 주변에 시유지를 택지로 지목 변경 후 주민에게 매각 하여 숙원해결 및 관광지 면모를 일신하는 일석이조의 효과에 대한 대책을 질의.



○정재하의원 (후평2동) : 실과 읍·면·동 정원에 맞는 인력배치 의지와 업무역차 해소방안을 물었 으며 주거변화에 따른 현 동체계의 적정성 여부를 질의.



○김익수의원 (동내면) : 석사동 약제소가 적지장의 매립기간이 아달달 로 끝나면 만큼 열 동리 쓰레기매립장 공사개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촉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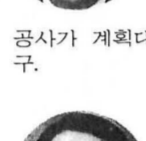
○유병권의원 (남산면) : 축사에서 풍기는 악취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만큼 사전에 자연농법 등 대책을 수립해 추진해야 할 것을 지적.



○이호상의원 (신동면) : 정족리 지역을 통과하는 1백54kW 고압송전선로와 관련 경과지 변경, 산로 지중화 하는데 춘천시가 적극 나서 것을 촉구.



○이호기의원 (북산면) : 춘천멀티. 에너지단 사업 추진에 따른 대학 외곽역비와 민간 이전지원, 9개사업 문제점을 지적.



○김경균의원 (남면) : IMF 협약체결에 따른 자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공사가 출산 수발해서 물품을 아껴쓰고 노후층 용차 교체도 신중히 할 것을 촉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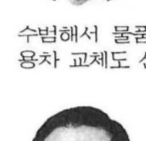
○백선열의원 (중앙동) : 주차관리공단 경강관 광개발공사 등 시 출자기관에 대한 감사를 촉구. 임 의보조단체지원이 행정편의에 따라 기준과 사전 사업성 검토가 부족했던 점을 강도높게 질의.



○신진태의원 (죽림동) : 주거지 전용주차에 주간 주차 차량이 오후 6시 이후 계속 주차시의 문제점과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늦어져 발생한 사유재산권 제한의 대책을 촉구.



○최정석의원 (사북면) : 사북면 일대에 설치된 일부 관공의 작동이 원활치 않은 만큼 사후관리의 문제점을 낱아뽑게 지적.



○정기열의원 (호반동) : 건축물 대장에 대한 전산화 작업의 미비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 지 않도록 민원을 기할 것을 촉구.



○안병규의원 (패시 밀리 복사기 등 민원장비들이 노후 하고 남아 시민들이 민원서류 제출 에 애로가 많은 만큼 장비현대화에 예산을 무자랄 것을 촉구.



○선병의원 (우동동) : 소양호 주변에 교통정체 해소방안은 무엇인지와 교복지역 택지개발과 하수도 설치와 관련, 기반부하 하수요금의 환율 용의를 질의. 또 철저한 수질감사도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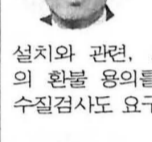
○이호승의원 (신북동) : 9억원 이 투자된 춘천 컨벤션센터가 세수증 대 차원에서 적극적인 임대활용방 안이 필요하다고 지적.



○김건익의원 (의동동) : 농기계 순회수리사업에 대한 인력이 많이 부족해 농민들이 불편을 겪는 만큼 인원을 보강할 것을 요구.



○최제봉의원 (근화동) : 농촌지 도소에서 특화작 물을 농가에 확대 보급할 때에 는 시장성과 관련 개척 등에 더욱 신경을 쓸 것을 주문.



○이호승의원 (의동동) : 개발제한구역이 지정 되기전에 건축된 가옥이 무허가로 남아 있는데 이같은 경우의 시가 갖고 있는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강력히 촉구. 또 문화예술행사의 행사비용 축소용의를 질의.



○이호승의원 (의동동) : 개발제한구역이 지정 되기전에 건축된 가옥이 무허가로 남아 있는데 이같은 경우의 시가 갖고 있는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강력히 촉구. 또 문화예술행사의 행사비용 축소용의를 질의.



○배호선의원 (사동동) : 소양호 등 도로공사에 따른 가로수 굴착지역에 대한 가로수 정비가 제대로 이뤄 지 않고 있는 만큼 가로경관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



○이호승의원 (의동동) : 개발제한구역이 지정 되기전에 건축된 가옥이 무허가로 남아 있는데 이같은 경우의 시가 갖고 있는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강력히 촉구. 또 문화예술행사의 행사비용 축소용의를 질의.



○이호승의원 (의동동) : 개발제한구역이 지정 되기전에 건축된 가옥이 무허가로 남아 있는데 이같은 경우의 시가 갖고 있는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강력히 촉구. 또 문화예술행사의 행사비용 축소용의를 질의.



○이호승의원 (의동동) : 개발제한구역이 지정 되기전에 건축된 가옥이 무허가로 남아 있는데 이같은 경우의 시가 갖고 있는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강력히 촉구. 또 문화예술행사의 행사비용 축소용의를 질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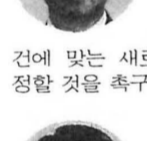
○이호승의원 (의동동) : 개발제한구역이 지정 되기전에 건축된 가옥이 무허가로 남아 있는데 이같은 경우의 시가 갖고 있는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강력히 촉구. 또 문화예술행사의 행사비용 축소용의를 질의.



○이호승의원 (의동동) : 개발제한구역이 지정 되기전에 건축된 가옥이 무허가로 남아 있는데 이같은 경우의 시가 갖고 있는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강력히 촉구. 또 문화예술행사의 행사비용 축소용의를 질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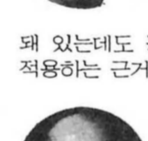
○이호승의원 (의동동) : 개발제한구역이 지정 되기전에 건축된 가옥이 무허가로 남아 있는데 이같은 경우의 시가 갖고 있는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강력히 촉구. 또 문화예술행사의 행사비용 축소용의를 질의.



○이호승의원 (의동동) : 개발제한구역이 지정 되기전에 건축된 가옥이 무허가로 남아 있는데 이같은 경우의 시가 갖고 있는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강력히 촉구. 또 문화예술행사의 행사비용 축소용의를 질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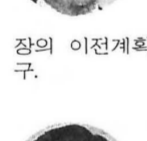
○이호승의원 (의동동) : 개발제한구역이 지정 되기전에 건축된 가옥이 무허가로 남아 있는데 이같은 경우의 시가 갖고 있는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강력히 촉구. 또 문화예술행사의 행사비용 축소용의를 질의.



○이호승의원 (의동동) : 개발제한구역이 지정 되기전에 건축된 가옥이 무허가로 남아 있는데 이같은 경우의 시가 갖고 있는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강력히 촉구. 또 문화예술행사의 행사비용 축소용의를 질의.



○이호승의원 (의동동) : 개발제한구역이 지정 되기전에 건축된 가옥이 무허가로 남아 있는데 이같은 경우의 시가 갖고 있는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강력히 촉구. 또 문화예술행사의 행사비용 축소용의를 질의.



○이호승의원 (의동동) : 개발제한구역이 지정 되기전에 건축된 가옥이 무허가로 남아 있는데 이같은 경우의 시가 갖고 있는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강력히 촉구. 또 문화예술행사의 행사비용 축소용의를 질의.



○이호승의원 (의동동) : 개발제한구역이 지정 되기전에 건축된 가옥이 무허가로 남아 있는데 이같은 경우의 시가 갖고 있는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강력히 촉구. 또 문화예술행사의 행사비용 축소용의를 질의.



○이호승의원 (의동동) : 개발제한구역이 지정 되기전에 건축된 가옥이 무허가로 남아 있는데 이같은 경우의 시가 갖고 있는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강력히 촉구. 또 문화예술행사의 행사비용 축소용의를 질의.

복합민원 우선심의제 실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민원서류 2~10일 단축

일로, 15일 민원은 10일로, 20일 민원은 15일로, 30일 민원은 20일로

하는 등 전체적으로 2-10일이 단축될 예정이다.

제3회 춘천 눈·얼음축제 개최

호수에 찾아온 겨울을 만끽하여 동심의 세계로 흠뻑 젖어들 수 있는 제3회 춘천 눈·얼음 축제가 오는 1월 10일부터 20일까지 삼천동 중도벚꽃 안 수변공원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대형눈조각 경연대회를 시작으로 소형눈조각경연, 눈썰매경기, 팽이돌리기 경연 등이 선보일 예정이다. 이밖에도 사진

콘테스트 연말리기 외에 15개소의 향토음식점을 개설하여 춘천을 찾는 많은 외국인에게 춘천의 막국수와 닭갈비도 내놓게 된다. 또 동심의 세계로 빠져들 수 있는 눈썰매장, 얼음벽, 얼음미로 등은 소재로 한 다양한 놀이구도 설치할 계획이다.

불소화 사업에 대하여

김건욱 의원(효자3동)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각 시·군 단위의 기초 자치단체에서 상수도 불소화를 추진하는 등 이른바 불소화사업 시행을 두고 찬성과 반대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다.

영한다. 심지어 1995년 미국에서 가장 낮은 총치질을 보인 도시는 불소화 지역이었다. 불소화물은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에 가장 독성이 강한 성분이다. 1963년-1979년 사이에 뉴욕주에서는 알루미늄 공장에서 배출한 불소화물로 인해 많은 가족들이 기형적인 골격 구조를 갖는 피해가 발생했다.

의에서 미국의 국립 치과 연구기관에 의한 연구결과와 다른 대부분 국가들의 전문가들이 내놓은 결과가 실험 마찰을 일으켰는데, 이것은 미 공중보건국의 후원을 받은 연구활동이 편파적으로 왜곡되어 있음을 보여준 것이었다. 그렇다면, 위의 피해를 무시하고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효율성을 질의한다.

국내에서는 1995년 1월에 제정된 국민건강 보건 증진법 및 상수도 불소투입에 관한 규정에서 불소가 충치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시·군 단위로 불소화사업을 권장하고 있다. 이미 진해, 청주, 과천 등지에서는 실시하고 있으나 춘천을 비롯한 몇몇 시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난항을 겪고 있는 중이다.

이처럼 불소화물 피해지역이 속출하고, 불소화물의 분해연수가 1-2백만년 걸리고, 자연의 정화능력에는 한계가 있음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생태계를 심각히 위협에 빠뜨리는 물질임에 틀림없다.

모든 시민들이 정수기 등을 배제하고 수도물을 모두 식수로 음용한다 하더라도 실제 이용률은 0.06%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99.94%의 불소화된 물은 여과없이 생태계로 흘러 들어간다. 쉽게 말해, 불소화 사업에 1천 원을 투자한다고 하면 시민들에게 특히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불소화 목표 집단인 어린이들에게는 고차 10배도 채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록 치과에 가서 쓰는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더군다나, 우리 나라의 계절마다 유류의 변동이 심하여 첨가된 불소화물의 농도를 관리하기 어렵고, 시설투자비, 약품비, 유지관리비를 고려한 수돗물 생산원가가 높아 결국은 인민 그 효과의 잇점에 비해 대가가 상대적으로 크다.

이와 같은 총치 예방의 효과가 지나치게 과장된 불소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외국의 비교 사례 연구를 통해 지적하고 불소화의 폐해를 경고하고자 한다.

원자번호가 13인 불소(Fluorine)는 자연상태에서는 불소화물(Fluoride)의 형태로 존재한다. 이 불소를 식수에 첨가하는 생각은 1930년대 알코아(美 알라미늄 제조회사)의 앨런이라는 연구기관에서 처음 제기되었다. 당시 알코아나 스탠다드 오일 다우 케미칼 같은 회사들은 알루미늄, 기술인, 인산염, 삼산화 철 등을 생산하면서 생성되는 불소화물의 처리를 두고 고심하고 있었고, 그 당시 자연적으로 불소화된 지역의 어린이들 사이에 충치 발생률이 낮다는 우연한 조사결과에 고무된 이들 회사는 미 공중보건국의 재정적 지원을 받은 많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일정한 불소화물 배출을 중단했다는 법률적 근거를 얻게 되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시행하거나 무조건 좋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삼류행태도와 상당함을 답습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시행하거나 무조건 좋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삼류행태도와 상당함을 답습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의 연구결과를 통계상의 오차를 무시했고, 조사 샘플대상의 범위와 기간의 편향성 및 불소화물의 독성을 간과한 것이었다.

불소가 충치 예방에 좋다는 일면적인 인식은 실제 공정한 연구나 과학적 조사에 바탕을 둔 내용에 비추어 보면, 설득력이 거의 없는 생각이다.

예를 들어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등지에서 충치 발생률은 1948년 이후 감소해 왔지만 이것은 불소화 사업을 전혀 시행하지 않는 국가들에 서로 똑같은 감소 추세를 나타내 왔기 때문에 불소화 사업의 신빙성에 치명적인 오류를 범

할 것을 요구.

예를 들어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등지에서 충치 발생률은 1948년 이후 감소해 왔지만 이것은 불소화 사업을 전혀 시행하지 않는 국가들에 서로 똑같은 감소 추세를 나타내 왔기 때문에 불소화 사업의 신빙성에 치명적인 오류를 범

할 것을 요구.

할 것을 요구.

할 것을 요구.

할 것을 요구.

할 것을 요구.

할 것을 요구.

할 것을 요구.

할 것을 요구.

할 것을 요구.

할 것을 요구.

할 것을 요구.

할 것을 요구.

할 것을 요구.

할 것을 요구.

할 것을 요구.

할 것을 요구.

할 것을 요구.

할 것을 요구.

할 것을 요구.

할 것을 요구.

할 것을 요구.

할 것을 요구.

할 것을 요구.

할 것을 요구.

할 것을 요구.

할 것을 요구.

할 것을 요구.

할 것을 요구.

할 것을 요구.

할 것을 요구.

할 것을 요구.

할 것을 요구.

할 것을 요구.

할 것을 요구.

할 것을 요구.

할 것을 요구.

할 것을 요구.

할 것을 요구.

할 것을 요구.

할 것을 요구.

할 것을 요구.

할 것을 요구.

할 것을 요구.

자동차세 납부안내
납세의무자 : '97. 12. 1일 현재 차량소유자
납부기간 : '97. 12. 16~12. 31
과세대상기간
승용자동차 : '97. 7. 1~12. 31(6개월분)
연납차량은 과세에서 제외(상반기 과세)
-승합·화물·경자동차(터코)
'97. 7. 1~12. 31 사이 신규등록한 차량은 사용일 수 만큼 과세
납부장소 : 시중은행, 농협, 축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문의처 : 춘천시 세무과(250-3297, 250-3293)

국민생활관 강습생 모집
'98. 1월 국민생활관 강습생접수안내
접수일자 : '97. 12. 26(금) 오전 9시부터 선착순 접수
접수내용
프로그램명 대상 강습시간 모집인원 강습요일
새벽반 기초 전시민 06:10-07:00 30명 화, 수, 금
수영 주부반 기초 여성 10:30-10:50 30명 화, 수, 금
중급 여성 10:30-10:50 30명 화, 수, 금
11:40-11:50 30명 화, 수, 금
저녁반 기초 전시민 17:40-18:30 30명 화, 수, 금
수 시 수
에어로빅 주부반 기초 여성 10:40-10:50 30명 월-금
헬스 새벽반 기초 시민 06:10-07:20 20명 월-금
아침반 " " 10:00-10:50 20명 월-금
" " " 11:00-11:50 20명 월-금
저녁반 " " 17:00-18:20 20명 월-금
* 금지사항
'97년 11월 부터 '98년 2월말 까지
강습시간 : 05:30
폐강시간 : 19:00
수영 강습생의 자유수영
강습료 : 수영장(31,500원), 에어로빅, 헬스(21,000원)
기타문의 : 문화예술회관 국민생활관 52-1666, 250-3596

청소년보호법 위반시 처벌내용 안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벌칙을 받게되며, 위반행위로 인해 이득을 보게 되었을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환수 조치됩니다.
최근 일부 업소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와 노래방 등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사례가 적발되어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업소에서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확인하여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판매하지 말며, 노래방 등에서도 청소년을 출입시키지 않도록 합니다.
우리 시민모두는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시 벌칙 내용
위반행위 벌칙 과징금액
○ 청소년 "교육금"을 위반한 때(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1항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 800만원
○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 금지를 위반한 때(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1항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 술 200만원 담배 100만원
○ 청소년 "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때(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2항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 300만원

연말연시 수산물 판매안내
연말연시를 앞두고 수협중앙회산하 전국 수산물 백화점을 통하여 양질의 다양한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요품목 : 굴비, 육통, 건오징어, 김, 미역, 멸치 등
선물세트 제작 : 구입금액에 맞도록 품목조성하여 주문제작 가능
가격 : 수산물 백화점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일부품목은 할인가능
판매처 : 춘천 수산물백화점(춘천시 효자동 692-1번지 ☎ 51-6913-4)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수입품입니다
오늘의 경제위기는 외환부족, 외채심각!!
우리나라의
'97년도 에너지 수입액이 275억달러가 예상됩니다.
에너지 수입의존도 97%이며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구는 세계 25위 에너지 소비량 11위 석유수입 세계 4위입니다.
모든기업과 국민이 에너지를 10% 절약하면 연간 약 28억달러의 무역수지가 개선됩니다.
겨울철난방온도는 18~20도가 건강에 좋습니다.
실내온도 1도 낮추면 약 5%의 에너지가 절약됩니다.
보일러 청소 10%의 연료가 절약됩니다.
전등은 절전형으로 사용하고 불필요한 등은 소등합니다.
경승용차를 타면 3년동안 664만원이 절약됩니다.
승용차 운행용 자제하고 합계타기 및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티끌같은 절약이 오늘의 경제위기를 극복합니다.
우리모두 에너지를 절약합시다.
춘천시청 지역경제진흥과



경제살리기 범시민 실천 결의대회

경제살리기 춘천시 범시민운동 실천결의대회가 지난 11월27일 오전 10시30분 춘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각급단체와 시민, 공무원 등 1천5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있었다.



퇴계동 군부대 주민 대청소 실시

퇴계동 주민 2백여명과 인근 군부대 장병 5백여명은 지난 12월 5일 오전 10시부터 남춘천교~은의교간을 청소하는 대청결연동을 실시했다. 한편 이날 차량은 군부대에서 2대가 지원됐다.

서천보건진료소 신축



서천보건진료소 신축 준공

남산면 백양리의 서천보건진료소 준공식이 지난 11월 26일 오전 11시 현지에서 배계삼 시장 정태성 시장의 이규실 부의장 허천 도의원 이근중 시의원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진료소 신축에는 1억8천만원이 들어 44평으로 건립됐다.



환경미화원 현장체험

배계삼시장, 임무봉부시장등 시청공무원 3백명은 지난 12월7일 새벽3시부터 환경미화원들과 함께 시내 일원에서 생활·음식물쓰레기를 치우는 미화원 현장 체험을 실시했다.



어려운 경제살리기 노·사·정 간담회

어려운 경제살리기 노·사·정 간담회가 지난 12월9일 오후 3시 30분 시청대회의실에서 임무봉부시장과 6개기관 단체 및 근로자 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간담회에서는 최근의 경제동향 및 분야별 역할분담 품질개선과 생산성 향상등을 협의했다.

미담

화재로 집없는 이웃에게 도움 소양동 주민 온정 펼쳐

△소양로4가 7층 주민들은 지난 달 23일 아침8시에 이웃에 사는 이덕범씨(65) 가족이 화재로 집과 가재도구를 잃고 추위에 떨고 있자 발벗고 나서 도움을 자청, 주위로 부터 친승이 자자. 이웃주민 박상욱씨는 집일부를 이씨네 가족이 거처하도록 제공했으며 주민들(회장:허우자)은 임시 반상회를 열고 이씨네 들기문등을 펼쳐 추운 날씨속에 실외에 빠진 이웃에게 희망을 선사.

한편 대한적십자사 강원지사에 서도 담요 등 7종의 구호품을 전달하고 위로했다. 성금품을 전해주시신 분은 다음과 같다. △춘천시시장-백미30kg △소낙동장 손순웅=10만원 △소낙동 통천회(회장:양승용)=10만원 △낙원상회(대표:이광우) 백미40kg △7동1반(반장:홍남) 주민일동 15만7천원 △7동2반(반장:변춘자) 주민일동 15만원 △7동3반(반장:김희관) 주민일동 6만원 △7동4반(반장:노진숙) 주민일동 7만원

△지난 12월4일 새벽5시 갑작스런 화재로 승일여인숙에 세들어 살던 이봉덕씨(80) 등 10가구의 딱한 사정을 알고 소낙동 10동장(회장:강영화·50)이 10만원을 동사무소에 기탁했으며 주민들도 성금을 모아 23만6천원을 전달했다. 또 이 소식을 들은 후평2동 주민성결교회(담임목사:최석원)에서도 20만원을 보내왔다. 한편 소낙동 통천회에서도 10만원을 전달하고 위로했다.

애민보육원 위문 춘천시아동위원회

춘천시아동위원회(위원장:이재권)는 지난 12월16일 애민보육원(원장:조수정)을 방문하고 위문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춘천고 축구팀에 방한복 29벌 전달 춘천시축구협회 '내년도 좋은 성적 당부'

춘천시 축구협회의 이상민회장 최기선 정구삼부회장 박학·권진호이사등 회장단은 지난 12월11일

오전10시 협회사무실에서 춘천고 축구팀(감독:하성준) 선수들에게 방한복 29벌(2백50만원상당)을 전달하고 내년시즌에서 좋은 성적을 올려 줄것을 당부했다

노인정 노래방기기 증정 남면 후동2리 향우상조회

남면 후동2리 향우상조회(회장:황복근·50)는 지난 12월17일 향우회원 38명이 모은 적립금으로 후동2리 노인정에 노래방기기 1대 마을영표 1대 스피커 4대(2백만원상당)를 기증했다.

노인초청 경로잔치 열여 강원중학교 학생회 태우고 우산 선물도

강원중학교 학생회(회장:이영권)는 지난 12월15일 오전10시 교내 예술관에서 학교어머니회 육성회 동창회의 후원으로 노인 2백80명을 초청하여 식사제공 및 여흥 등 경로잔치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학생들의 합창, 사물놀이, 리코더연주가 다채롭게 펼쳐졌다. 행사차에는 2백여만원이 소요됐으며 태우고 우산(2백만원상당)을 선물로 준비했다.

시립양로원 찾아 흥겨운 시간 가져 한일생명 추수단, 성금 2백만원도 전달

춘천시에 본사를 두고있는 한일생명의 추수단수단은 지난 12월8일 춘천시립양로원을 찾아 그동안 선수와 일원들이 매일 적립한 2백만 원을 전달하고 2시간동안 노인들과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고사리손 수익금으로 위문 남춘천초등 어린이들 밀알재활원 사랑의 집 방문

남춘천초등학교(교장:경광현)아람단원과 4학년생들은 지난 12월5일 신동면 밀알재활원과 서면 사랑의 집을 방문하고 불우이웃들이 일할수에서 얻은 수익금78만원으로 TV등 위문품을 마련하여 전달하고 위로했다.

어려운 이웃들이 자신의 밤 행사 근화초등학생회와 해방대 춘천시 전우회 주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펼쳐진 춘천시민자선연회 행사

지난 12월11일

성골름반의원 호스피스 가정간호사업 임종환자 사랑으로 돌보는 봉사자들

"주위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나 연락 바라"

임종을 앞두고 병마의 고통에서 시름하는 환자를 사랑의 힘으로 도움을 주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녹이고 있다. 성 골름반의원(춘천시 약사동 34번지)의 호스피스봉사자들이 바로 그들. 아일랜드에서 온 노라수녀(51)를 주축으로 의사2명(배지연 내과, 신은화 가정의)간호사 4명 상담사 1명 자원봉사자 15명으로 구성된 호스피스봉사자들은 춘천시를 비롯 인근의 흥천 화천 가평 지역의 임종환자(주로 말기암환자)를 돌보고 있다. 이들은 암환자들이 잘 모르고 때문에 안타까움이 안타까움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으며 "도움을 주기위해 가까운 곳에 누군가가 안에 걸려 오랜 고통 중에 있다면 지체없이 연락 바란다"고 간곡히 부탁한다.



노라수녀를 중심으로 한 호스피스 봉사자들이 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를 돌보고 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은 암환자(초기진단 받은 환자, 방사선·약물치료중인 환자, 임종을 기다리는 환자 모두)와 더이상 별원치료를 받을 수 없어 집에서 돌보는 중환자 등이다. 김정해간호사(48)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춘천시 호스피스사업에 지원을 해줘 무척 감사한다. 또 자신의 종교에 관계없이 도

여 시립양로원을 위문했다.

△신동면팔미3리 이장 김재식씨는 지난 12월8일 오전11시 주민들이 거출해준 모퉁 백미20kg 28포(1백99원 상당)를 신동면에 거주하는 신우철씨등 생활보호대상자 28가구를 방문하여 전달하고 위로했다.

△소낙동부녀회(회장:박순중·45)는 지난 7월28일 소양로3가 황복동씨등 10가구에 25만원 상당의 김장김치 1백포기를 전달하고 위로했다.

△중양성결교회(목사:윤철중)는 지난 12월19일 오전9시30분 축일동 관내 불우이웃에게 쌀 20kg들이 30포(1백만원상당)를 전달하고 위로했다.

△복산면 의용소방대(대장:홍종욱)는 지난 12월19일 정오 면사무소에서 불우이웃에게 라면 40박스(25만원상당)를 전달하고 격려했다.

△동산면 적십자봉사단(단장:김복자)은 지난 12월16일 정오 흥천군 서석면 삼덕원(장애자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성금 10만원과 떡2말 라면10박스를 전달하고 위로했다.

△서면 대광교회(목사:정하영)는 지난 11월30일 오전11시 담림리 소재 구교회에서 서울 시민교회의 후원으로 주민 1백34세대 3백43명을 대상으로 농촌봉사 순회진료를 실시했다.

△사북면 부녀회(회장:김옥희)는 지난 11월28일 어려운 이웃주민 10가구에 김장4백포기와 백미5포를 전달하고 위로했다.

△석사동고부회(회장:윤복순)는 지난 12월10일 오전10시 떡 과일등 25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갖고 석사동 삼익1차아파트 경로당등 6개소를 위문했으며 12월11일에는 불고기 등 50만원 상당의 음식을 마련하

7월7일 오후6시30분 강원대 백령문화관에서 근화초등학생회(회장:최정철)와 해방대춘천시전우회(회장:김용완) 주최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개그맨 김학규 김상희를 비롯 해방대연예인과 MC겸 가수인 길은정이 출연했다.

춘천자활근로대 위문 춘천의용소방대 송년회비 결의하여

춘천의용소방대(대장:이명원)는 지난 12월4일 오후2시 근화초등학생회(회장:이명희) 대원15명을 방문하여 매년 실시하던 송년회경비를 결의하여 월봉용유류 1천6백리터와 백미1백60kg(2가마)를 전달하고 위로했다.

△에인스튜디오(회장:고승열)는 지난 12월9일 오후2시 후평2동사무소에서 후평2동에 사는 신영희 노인등 무의탁노인 10명에게 영정사진을 무료로 촬영했다. 에인스튜디오에서는 올한해 6백여명의 영정사진을 촬영해준바 있다.

△복산면 이장단협의회(회장:윤문중·내평이장)는 지난 12월10일 이장15명 참석리에 월례회의 개최에 앞서 불우이웃들이 성금 15만원 을 모아 면사무소에 기탁했다.

△동내면부녀회(회장:라원식)는 폐품수집성금으로 지난 12월12일 오전10시 면사무소회의실에서 경로잔치와 병행하여 불우노인 15명에게 연료비 2백만원씩과 불우청소년 5명에게 장학금 210만원씩을 전달했다.

△최근 조산으로 인한 미숙아의 경우 시력에 손상을 입은 유아의 출현률이 높습니다. 이런 유아의 경우 오래 방치해 두면 다른 장애까지 입을 수 있으므로 하루라도 빨리 상담을 통해 조기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1998학년도 강원명진학교(시각장애특수교육기관) 신입생 모집 요강

1. 모집인원 및 응모자격

과정별	수업 연한	모집 인원	지 원 자 격
유치부	1	7	'92. 3. 1~'96. 2월말사이 출생한 초등학교 취학 시기 전의 맹·약시 아동
초등부	6	10	'91년 3. 1~'92. 2월말사이 출생한 저령아동 및 취학시기 전의 맹·약시 아동
중학부	3	13	중학교 과정의 입학자격을 갖춘 맹·약시(중도 시각장애인 포함)
고등부	3	15	고등학교 과정의 입학 자격을 갖춘 맹·약시(중도 시각장애인 포함)
2. 특수교육 시각 장애 선정기준(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발효)
 - 시각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
 -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4 미만인자.
 - 시력의 손상이 심하여 시력에 의하여 학습과제를 수행할 수 없고, 촉각이나 청각의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자.
 - 두 눈 교정시력은 각각 0.04이상이나 특정의 매체 또는 과정의 수정을 통하여서도 시각적 과제 수행이 어려운자.
 - 특정의 광학기구·학습매체 또는 설비를 통하여
3. 문의처
 - 우 200-150 강원도 춘천시 우동동 399-7 강원명진학교
 - ☎교무실 (0361)53-3011, 서무실 53-3012

제3회 춘천 눈·얼음축제

겨울의 낭만과 멋이 살아 숨쉬는 호반 춘천에서 온가족이 멋진 추억을 만듭시다

겨울철 중심의 세계를 흠뻑 즐길 수 있는 춘천 눈·얼음 축제!

일 정 : '98. 1. 10~1. 25(16일간)
장 소 : 춘천시 삼천동 수변공원(중도뱃터)
주 최 : 춘천시
주 관 : 춘천눈얼음축제조직위원회
후 원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행사내용

- ◆ 대형 눈조각 경연 : '98. 1. 10~1. 16
- ◆ 소형 눈조각 경연 : '98. 1. 14~1. 16
- ◆ 눈썰매 끌기 경연 : '98. 1. 17~1. 25
- ◆ 팽이돌리기 경연 : '98. 1. 17~1. 25
- ◆ 기타 : 사진콘테스트, 연날리기, 눈썰매장 운영, 향토음식집

※참가신청 기간 : '97. 12. 18~12. 30
접수처 :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 문화예술과
(☎ 250-3541)

겨울 관광의 명소로 자리잡은 "춘천 눈·얼음 축제"

문화유산과 어우러지는 새명소로 부각 소양로 7층석탑 주변 1차정비사업 완료

주변 건물 이전 마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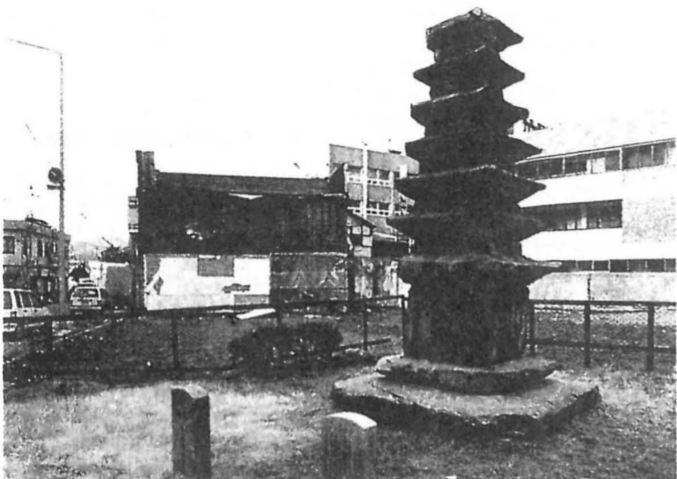
보물 77호인 춘천시 소양로2가 7층 석탑주변의 1차정비사업이 완료되었다.

춘천시에 따르면 7층석탑 주변 불량 건축물 9개동을 매입하고 철거를 완료함으로써 도시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고 있다.

또한 내년에는 현재 지면에서 약 1.5m정도 묻혀 있는 석탑을 보호구역의 중심부로 옮겨 문화유산의 원형을 볼 수 있도록 복원하고 주변을 문화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가지정 문화재로 도시속의 불량한 환경속에 있던 우리의 귀중한 문화유산이 '97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새롭게 태어나 춘천의 새명소로 부각할 전망이다.

한편 소양로 춘천칠층석탑은 지난 63년 1월에 보물로 지정되었으며 규모는 높이×가로×세로=5.5m×1.56m×1.51m이며 조성시기는 고려중기로 추정되고 있다.



◇ 소양로2가 7층석탑 주변이 새롭게 정비되어 춘천의 새로운 명소로 탄생할 예정이다. 오른쪽 사진은 일제시대인 1930년대 촬영된 것으로 기단부가 완전히 드러나 있다. ◇



'97송년대음악회 '환희의 송가' 협연 시립합창 · 교향악단 지난 13일 문예회관에서

춘천시립합창단과 시립교향악단, 강릉시립합창단이 협연한 '환희의 송가' 공연이 지난 12월 13일 오후 7시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97 송년대음악회로 열린 이번 공연은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오렌지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등 오레리명곡과 국악인들의 '박연폭포', '청산리 벽계수야' 등이 선사됐다.

무의촌 의료지원 · 이용봉사활동 동산면 이장단협의회
국군춘천병원과 이용협회 도움으로
동산면 이장단협의회(회장 김명환)는 지난 12월 10일(수)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동산초등학교에서 국군춘천병원과 춘천시이용협회의 도움으로 편민을 대상으로 의료지원 및 이용봉사활동을 펼쳤다.

춘천콜 신동파출소 준공식
춘천경찰서 신동파출소 준공식이 지난 12월 9일 오전 11시 칠천동 현지에서 류중수 국회의원의 현직 춘천경찰서장 정태섭 시의회장 임무봉 부시장 흥은신 신동파출소장과 직원 주민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동내파출소 준공
춘천경찰서 동내파출소(소장 이승찬) 준공식이 지난 12월 5일 오전 11시 석사동 현지에서 기관단체장 및 지역인사 주민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효자·효부상 시상 및 농악기 기증 춘천문화원 12월 16일

춘천문화원(원장 이대근)이 주관하는 춘천 효자·효부상 시상식 및 농악기 기증식이 지난 12월 16일 오후 3시 춘천문화원회의실에서 있었다.

3번지 ▲효행상 △정안나(소양초등 6) △빈태형(부안초등 6) △이혜진(상천초등 4) △배종업(춘천중 3) △유영선(남춘천중 3) △황명자(발산중 3) ▲농악기 수혜학교=소양초등학교 장교 10명품목 1백37만15천원 상당

춘천실의빙상장

○개장일 : '97. 12. 6
○시설사유료 : '97년 무료개방, '98년부터 징수

실의빙상장 사유료

구분	요금
개인	일반 3,000
	학생(초, 중, 고) 2,500
월	일반 54,000
	학생(초, 중, 고) 48,000
등록선수	일반 42,000
	학생(초, 중, 고) 36,000
단체	일반 2,500
	학생(중, 고) 2,000
대관요금	팀훈련 50,000
	대회 및 행사 일반행사 80,000
	일반행사 100,000

'97~'98 춘천빙상대회 일정표

대회명칭	대회기간	참가범위
제52회 전국남녀 종합빙상선수권대회	'97. 12. 29(월)~12. 30(화)	추천선수
'98 전국남녀 주니어빙상선수권대회 겸 '98세계주니어파견선발대회 및 올림픽파견선수선발대회	'98. 1. 5(월)~1. 6(화)	추천선수
제28회 회장기 전국남녀 빙상경기대회	'98. 1. 12(월)~1. 13(화)	초, 중, 고, 대, 일반
'98 전국남녀하계 종합빙상선수권대회	'98. 1. 19(월)~1. 20(화)	추천선수
제32회 전국남녀 동북빙상선수권대회	'98. 2. 2(월)~2. 3(화)	추천선수
제33회 "고" 빙상인주보 전국남녀 빙상경기대회	'98. 2. 21(토)~2. 22(일)	초, 중, 고, 대, 일반
제79회 전국체육대회 동계대회	'98. 2. 2(화)~2. 10(화)	초, 중, 고, 대, 일반
제33회 전국남녀중·고등학교대항 빙상경기대회	일정미정	중·고연맹
제31회 전국남녀대학 대항 빙상경기대회	일정미정	대학연맹
'98 한일전선 교향빙기대회	일정미정	중·고연맹

사보칼럼

춘천유수부 건설

지금으로부터 107년전, 조선왕조 고종 27년(서기 1892년) 춘천유수부(春川留守府)에서는 이궁(離宮) 건설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춘천도호부(春川都護府)에서 춘천유수로 바뀐 것은 고종 25년(서기 1890년) 4월이었다. 강원관찰부에서 분리, 조정에서 직접 관할하는 유수부를 설치함으로써 중앙 직할의 별도(別都)가 되었다. 중앙 직할의 별도를 만든다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하나는 서서동점(西勢東點)과 일본의 침략에 대응하는 임시수도를 건설하려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바다와 멀리 떨어진 내륙에서 열강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기르자는 것이었다. 춘천유수부는 그러니까 나라가 위급할 때 정부가 옮겨 앉는 임시수도의 역할을 담당할 기관이었다.



김영기
(강원일보 논설위원)

병인양요 신미양요 국난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로 침입한 것은 고종 3년(서기 1868년)이었다. 프랑스 함대의 침입사건을 병인양요라고 한다. 미국 함대가 강화도로 쳐들어온 것은 고종 8년(서기 1873년)이었다.

미국 함대의 침입사건을 역사에서는 신미양요라고 부른다. 일본 함대가 강화도로 침입한 것은 고종 12년(1879년)이었다. 일본 함대의 침입사건을 운양호사건이라고 부른다.

병인양요 · 신미양요 · 운양호사건은 우리나라에 대한 열강의 함포외교의 시작이었다. 강대국들은 우리나라에 대해 문호를 개방하라고 했다. 그러나 대원군 집권시기인 당시의 조정은 서구 열강이나 일본에 대해 문호를 개방하지 않을 것이며 대항해서 싸우겠다는 결의를 천명했다. 이에 프랑스와 미국, 그리고 일본이 함대를 보내 우리나라를 위협했다.

국내에서는 프랑스 미국 등 서구열강과 일본에 대해서 반감이 고조되었으며 저항의 파고가 높아만 갔다. 대원군의 척양척왜(斥洋斥倭) 정책이 강력히 추진되었다. 서해안을 침범하는 열강의 세력에 대응하면서 힘을 기를 수 있는 피난지 임시 수도 건설을 절박하게 되었다. 춘천에 유수부(留守府)를 설치하고 중앙 직할의 별도를 설치한 것은 외세(外勢)에 대한 저항의 역사적 산물이었다.

춘천유수부에 이궁(離宮)이 건립되기 시작한 것은 고종 25년(서기 1890년)이었다. 조정에서 임금이 피난할 경우 집무를 볼 수 있는 피난지 궁궐을 짓기 시작했다. 당시의 춘천 유수(留守)였던 민두호(閔斗濤)는 왕명을 받고 지방재정을 총동원 약 2년 만에 걸쳐 이궁 건립을 완성했다. 강원도내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궁궐이 건설되었다.

춘천유수부에 궁궐(이궁)이 건립된다는 세가지 역사적 의미가 있다. 첫째는 열강에 대응하

기 위해 장기 항전대응책을 세웠던 점이다. 둘째는 해양으로부터의 침입에 대해 내륙에서의 항전을 계획했던 점이다. 셋째는 춘천지방이 척사위정(斥邪衛正)의 근거지로서 항전세력을 결집할 수 있었던 데 있다.

당시 춘천지방은 화서학파(華西學派)의 근거지였다. 이항로(李恒老) 김평묵(金平默) 유중교(柳重敎) 유인석(柳麟錫)으로 학맥이 이어지는 척양척왜의 행동주의가 전국으로 전파되어 나갔다. 춘천의병봉기가 전국에서 가장 강렬했고 대규모였던 것도 화서학파의 근거지였던 데 연유한다.

춘천유수부 설치, 춘천 임시수도 궁궐 건설은 춘천을 한국의 중심지로 떠올렸던 역사적 사건이었다.

새춘천 건설의 역사 창조

병인양요 신미양요 운양호사건으로 춘천유수부 설치, 이궁 건설을 도모했던 정치 경제 사회적 기반은 외세에 대응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춘천유수부 설치 이궁건설은 후에 춘천이 강원도청 소재지가 되는 역사의 동기가 되었다.

고종 32년(서기 1896년) 정부는 전국을 23부(府)로 행정구역을 개편했다. 8개 도(道)를 23개 관찰부(觀察府)로 개편했다. 강원도는 춘천관찰부 강원관찰부로 갈라지고 원주 남쪽은 충주관찰부로 이관되었다. 춘천유수부의 이궁은 춘천관찰부 소속이 되었다.

고종 33년(1898년) 23개 관찰부는 다시 13개 도로 개편되었다. 강원도 관찰부의 치소(治所)는 춘천으로 정해졌으며 충주관찰부에 편입되었던 원주 남쪽지역도 강원도로 복귀되었다. 강원도 관찰부(후에 강원도 도청)는 임시수도 궁궐이 이궁에 자리잡게 된다. 지금으로부터 101년 전 춘천이 강원도 도청소재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춘천유수부 설치와 이궁 건설이라는 대규모 토목공사에 힘입었다. 춘천의 이궁건설은 외세에 대응하는 국난극복의 역사적 교훈이 되고 있다.

IMF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새 춘천 건설이 모색되어야 한다. 도전할 때는 세력에 대해 응전하는 세력의 힘이 강할 때만이 문명은 살아남는다고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영국의 역사가 토인비는 설파한 바 있다. IMF경제난국은 분명 이 도전해온 세력이다. 여기에 응전하는 우리의 세력이 강해야만 한다.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힘을 모아야 생존할 수 있고 번영을 누릴 수 있다.

외세에 도전해서 춘천유수부에 이궁을 건설했던 것처럼 IMF시대에 춘천시에 새로운 이궁을 건설해야 한다. 그것은 멀티미디어 단지조성, 생활산업 육성, 민회영상도시 건설로 비교된다. 춘천 나름대로 경제난국 극복의 장을 열어야 한다. 우리는 그것을 제2의 춘천유수부 궁궐 건설이라고 비유할 수 있다.

「경제 살리기」에 시민 모두가 동참합시다

우리가 실천 할 일

- 에너지 절약운동을 생활화 합시다.
-전등 한등끄기, 수돗물 아껴쓰기, 냉 · 난방기 가동줄이기, 자가용 안타기
- 근거 소비절약 저축운동에 앞장 섭시다.
-생활 씹씹이 줄이기(물자 재활용)
-소비 줄인 만큼 저축하기
- 국산품을 애용 합시다.
-외국 물품 구입 안하기
-로열티지급 상품 안사기
- 해외 여행을 자제합시다.
-불요 불급한 해외여행 안하기
-친목여행, 신혼여행 해외 안가기
- 생활 쓰레기를 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가정, 식당)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하기
- 생활 문화를 개선 합시다.
-음주문화(2, 3차), 선물문화(고가품)
-결혼문화(외제혼수품), 송년회(간소화)

- 최근의 우리 경제는 IMF의 구제 금융을 받아 외채를 갚아야 할 정도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 우리 모두 새로운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합시다.



우리의 결의

최근 달러 환율의 급등과 주가의 급락으로 우리 경제의 위기감이 확산되어가고 있으며, 금융시장의 불안정 등 심각한 경제난국을 맞고 있는데 대하여 우려를 금치 못하고 우리 춘천시민일동은 건전한 소비 생활과 근검 · 절약으로 경제살리기 300억 저축운동을 재점화하고 하루속히 국가경제가 활력을 되찾는데 앞장서 나갈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경제살리기」 춘천시 범 시민운동으로 전개하는
-집에 있는 「푼돈달러」 은행 예금하기
-해외여행 자제하기
-걷기운동의 생활화로 자동차 안타기 운동
-한집 한등끄기 에너지절약
-국산품 애용 운동
-반찬가지수 줄이기
-국산품 애용운동 등
실천과제 이행에 적극 동참한다.

「에너지절약은 의화절약」

☞ '96 연간 에너지수입에 든 외화는 ⇒ 241억불(약 20조원)
"10% 덜쓰면 연간 2조원 절약"
♣ 2조원은?
-컴퓨터 85만대(전국 초 · 중 · 고교에 각 95대씩 공급가능)
-원자력발전소 1기 건설 가능
-자동차 수출 29만대와 맞먹는 금액입니다.

☞ 각 가정에 보관하고 있는 달러를 모금합니다. (기간: 11. 25~12. 30, 모금처 : 시청 · 읍면동 민원실, 모금액 : 불우이웃돕기성금기탁)

1월의 독립운동가

은암(隱岩) 신언준(申彦俊) 선생

국가보훈처에서는 광복회·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조국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신언준 선생을 1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 하였습니다.

○1904년 평안남도 평원에서 출생 하신 선생은

○1924년부터 임시정부 산하 상해 대한교단에서 운영하던 인성 학교에서 민족교육에 헌신하셨 으며

1927년 홍사단 원동위원부에 가입하여 안창호 선생을 도와 독립운동에 참여하였으며 1927년부터 1929년까지 상해 중앙일보·세계신문 등에 재직하면서 한국 독립운동에 대한 지원여론을 조성하는데 크게 이바지 하였습니다.

○특히 1932년 1월 이봉창 의거 직후 최초로 이사의 사직을 중국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한국 독립운동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신병으로 1936년 귀국후 신 선생은 투병 끝에 1938년 별세 하였습니다.

공지사항

이제 경제난 극복에 힘을 모아 나갑시다.

○IMF 지원자금, 가장 빨리 갈 는 나라가 됩시다. ○나라경제를 살리기 위해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읍시다.

○지금 우리는 경제적으로 국제통 화기금(IMF)의 지원을 받는 등 매우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이념으로 우리는 세계경제의 현실이 얼마나 냉엄한지에 대하여 큰 대가를 치루고야야 배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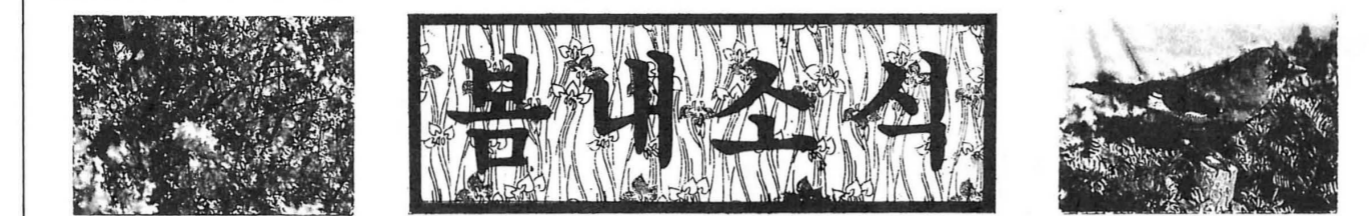
-자칫 잘못하면 30년간 온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 놓은 값진 성과를 일순간에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대로 주저 있을 수만 는 없습니다.

○우리는 6·25의 폐허속에서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고 두번에 걸친 오일쇼크를 훌륭히 극복하였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멕시코가 해낸 일을 우리가 못 해낼 것이 없습니다.

○우리모두 힘을 모아 역경을 헤



○市花 개나리

○市鳥 산까치

대공·범직신고 안내

"신고하여 혼란막고 안정속에 지역발전"

간첩, 거동수상자, 행동이 이상한 군인, 대민 피해사상은 아래 진화로 연라 바뀔다. 신고하신 분에게는 간첩 1억원, 좌익사범은 최고 3천만원까지 드립시다.

- 군부대 : 241-0113, 55-3113
국군 기무부대 : 241-1113
국가 안전 기획부 : 242-1113

동절기 가스사고를 예방합니다.

○가정에서 가스사용전에는 반드시 환기와 점검을 생활화하고 사용후에는 꼭 잠그고, 장기간 집을 비울때에는 LPG는 용기밸브, 도시가스는 메인밸브까지 잠급시다.

무인발급기가 주민카드를 넣으려면 자동으로 발급됨

○주민등록자료의 유출로 인한 생활 침해가 없도록, 기술적인 보안장치와 아울러, 자료유출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였으며,

구제역(口蹄疫) 예방에 적극 협조합니다.

○'97. 12. 11 인문보도에 의하면 대안에서 '구제역(口蹄疫)',이 재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카드, 제 도입안내

○지난 '89년도에 일제경신한 현행 '주민등록증'을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주민카드'로 변경 발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이동도서관 순회일정표

Table with columns: 요일, 읍면동, 대출장소, 대출시간, 월별순회일자 (1월, 2월). Lists library routes for various districts like Shinbong, Dongmyeon, etc.

'99 농림사업 신청안내

- 사업신청 요령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98. 1. 20까지
○신청대상 : 농림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생산자 단체, 생산자 공동조직, 농업인 등
○제출장소 : 읍·면·동(산업경제계 및 산업담당자) 사무소

이동도서관 순회일정표

Table with columns: 요일, 읍면동, 대출장소, 대출시간, 월별순회일자 (1월, 2월). Lists library routes for various districts like Shinbong, Dongmyeon, etc.

춘천시중소기업육성자금 긴급지원계획

- 중소기업육성자금 현황
○조성규모 : 270억원
○지원한도 : 5천만원 - 3억원 범위내
○금리 : 시중금리중 3%이내에서 보전
○'97년도 지원실적 : 767개업체 7297천6백만원

자원봉사자 모집

춘천시립도서관에서는 도서관이 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오니 시민 여러분께서 뜻을 모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중고생 무료전산교육 신청안내

Table with columns: 대상, 장소, 기간, 인원, 신청방법, 교육장. Lists computer education programs fo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건강상식

환절기나 추운겨울에 갑자기 추위에 노출되면 피부와 혈관이 수축, 일시적으로 혈압이 올라가고 뇌혈관이 좁아져 뇌졸중에 걸리기 쉽습니다.

또한 뇌세포는 다른 신체조직과는 달리 한 번 손상되면 소생이 불가능하여 생명을 잃거나 반신불수, 언어장애 등의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기므로 예방이 중요하니다.

○뇌졸중환자 발생시 응급조치
-중증환자는 손식간에 깊은 후손 상태에 빠지므로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구토물이 목구멍을 막지

않도록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목을 약간 뒤로 젖혀 숨쉬기가 편하도록 해야 합니다.

○구제역,은 소, 돼지, 사슴, 염소 등 발굽이 두 개로 갈라진 동물에 발생하는 가축전염병으로 입과 발톱이 썩어 들어가는 무서운 질병으로 현재까지는 치료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97 문화유산의 해를 계기로 우리 문화유산의 보호의지에 대한 기본정신을 천명하는 '문화유산헌장'을 제정 선포하였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런 민족문화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웃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발견하였을 때에는 축산행정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제가 내년부터 확대 시행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10인 이상 사업장까지 고용보험제가 확대 시행됩니다.

○보험료는 근로자(임금의 0.3%)와 기업(임금의 1%이내)이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며, 보험료 수입으로 실업급여 지급,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받는 혜택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자신이 직장을 스스로 그만 두거나 민·형사상의 중대한 잘못으로 그만둔 경우가 아니면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신속한 구인·구직정보를 통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장을 알선받을 수 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던 근로자는 직업 훈련비공과 일정 수당을 지원받게 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전

금년도에 징병검사를 받은 78년생(1986)인 병역의무자는 내년부터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임명하게 되지만 각종시험(대입시,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과 직업전문학교 및 대학에 진학하는 사람은 임명을 연기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문의 ⇒ 시, 읍·면 동사무소

취업정보

□ 함께 일할 분을 구합니다.

Table with columns: 회사명, 직종, 모집인원, 전화번호, 비고. Lists job openings for companies like (주) 불화, (주) 하나식품, 유성정밀.

12월 반상회 퀴즈

□ 우리 모두 함께 풀어봅시다
○이제는 □□□□ 다시 한번 도약할 때입니다.
○연말연시 □□□□에 관심을 가집니다.

□ 응모요령 : 우편연서에서 정답을 기재하여 '98. 1. 10까지 시청 총무과(춘천시 육천동 111) 반상회담당자앞으로 보내 주시면 정답자를 추첨하여 경품을 드립니다. (※ 통, 리, 반, 번지를 정확히 기재하셔야 함)

'97년 11월 반상회 퀴즈 당첨자 명단

Table with columns: 성명, 주소, 성명, 주소. Lists names and addresses of quiz winners from the November 1997 community meeting.

정답 : 12. 18, 화재

